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100002-01



일손,
연결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일손,
연결하다.



■ 2024 농업고용인력지원 우수사례집

일손,
연결하다.



contents

PART. 1

공공형 계절근로 우수사례

01. 무주농협	6
02. 안동와룡농협	10
03. 함양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14
04. 선운산농협	18
05. 곡성농협	22

PART. 2

농촌인력중개센터 우수사례

01. 봉화농협	28
02. 춘천시농어업회의소	32
03. 부여군농업회의소	36
04. 농협음성군지부	40

PART. 3

농업인 우수사례

01. 농업 경영인 무주 율이네 농장 이종덕 대표	46
02. 귀농 근로자 제천 달재농장 이용태 농부	50

PART. 4

일손돕기 우수사례

01. 기업 (주)상지건축	56
02. 대학교 서원대학교	60

—
PART. 1
공공형
계절근로
우수사례

일손, 연결하다 ●





- 01. 무주농협
- 02. 안동와룡농협
- 03.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 04. 선운산농협
- 05. 곡성농협

공공형
계절근로
우수사례

01

현지면접 시스템 전국에서 첫 도입 작업능률 높이고 이탈률 제로 달성

무주농협



관리 지역

무주읍, 5개면

주요 작물

수박, 토마토, 사과,
고추, 샤인머스켓

지원 형태

공공형 계절근로

문의 전화

063-323-3911

전북 무주군은 무주읍과 무풍면, 부남면, 설천면, 안성면, 적상면 등 1개읍 5개면으로 나뉘어져있으며 농업기반은 논 25.8%, 밭 47.9%, 과수 24.6%, 시설원에 1.7%이다. 덕유산, 대덕산, 적상산 등 높은 산의 분지 지형과 금강 상류에서 흐르는 하천의 곡저평야를 기반으로 수박, 사과, 샤인머스켓 등의 과일과 옥수수, 고추, 마늘 등 고랭지 채소가 생산되고 있다.

최근의 기후변화로 무주의 주력품목인 사과가 강원도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고, 고추, 마늘, 인삼 등 고랭지 채소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무주 자자체와 농업단체가 협력해 1읍·면 1특화작목 육성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무주군도 고령화 및 청년농업인 감소로 후계농업인이 없는 농업인이 85.9%에 달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지 않고는 사실상 농사 짓기가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주농협은 무주군, 구천동농협, 농협무주군지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년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며 인력공급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주농협은 지난 1월 필리핀 카비테주 마라군돈 지자체와 MOU를 통해 계절근로자 46명을 도입하여 10월말 기준 2,061농가에 6,143명을 중개하였다. 근로자들은 무주 지역의 주요 작물인 수박 순 고르기, 블루베리, 복분자 수확, 사과 잎 따기·알 숙기, 제초, 인삼 수확, 사과 수확 등의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앞서 무주농협은 2023년에는 1월부터 12월 초까지 필리핀 근로자 50명을 운용하여 2,187농가에 7,691명을 중개한 바 있다.



1. 2024년 1월, 현지에서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필리핀 근로자들
2. 1차로 현지에서 건강검진 실시
3. 이영철 단장(오른쪽 앞)이 2차 방문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2년 연속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으로 농가 인력 수급

무주농협은 도입 초기의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선진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무주농협 측은 “2024년의 경우 필리핀의 현지 지자체에 도입인원 대비 3배수의 신청서류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무려 6배에 달하는 300명대 서류가 접수되었다”면서 “서류심사에서 최소 2배수 이상의 인력을 선별하고 두 차례의 현지면접을 통해 필요인력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무주농협은 1차 면접에서 색맹 검사, 혈압, 혈당 체크 등 건강검진과 간단한 체력테스트를 실시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2차로 1대 1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근로자의 한국 입국 이력, 농작업 경험, 한국어 구사 능력, 리더십 등 종합적인 작업역량을 검토하여 최종 인원을 선발했다. 무주군에 도착한 근로자들은 마약 검사 등 2차 건강검진과 농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영농교육을 마친 뒤에 본격적으로 필요 농가에 배정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점심시간 제외) 근로에 평균 11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간다. 근무를 마친 뒤에는 순회버스를 타고 무주군에서 마련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민간펜션으로 돌아와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이영철 단장은 “현지 지자체를 통해 한국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진행하였고, 꼼꼼한 검증과정을 거쳐 근로자들을 엄선한 결과 농사 현장에서 적응이 빠를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탈률 제로화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면서 “무주의 채용모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주체들이 무주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정된 인력을 농가에 배분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농가가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1. 외국 근로자들이 관내 농가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있다. 2. 고추 재배농가에서 작업 중인 필리핀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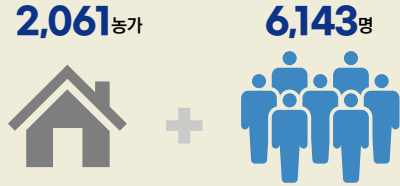
무주읍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한 농가주는 “과거에는 공신력없는 사설업체의 알선 행위가 성행하였고, 그들이 중간에 많은 이익을 취하여 인건비가 비싸다는 걸 알면서도 일손이 없으니 울며겨자먹기로 이용했다”고 말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기준이 정해지고 임금이 턱없이 오르는 것을 막아 주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철 노지 재배 작업이 많은 무주군의 경우 2023년에는 여름장마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농가의 작업수요가 줄었고, 이로써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영철 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농가에는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는 1석 2조의 제도”라면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농자재 유통, 농축산물 유통 등 농업 전반에 미치는 선순환 효과가 크기때문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금의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눈에 보는 지원 성과

1. 계절근로자 매칭 (2024.10 기준)



2. 무주군 MOU체결 현황



3. 현지면접시스템 도입 효과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

POINT



무주농협
이영철 단장

60:15:25 계절근로자 연차별 황금비율로 운영 효율화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정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기대이하의 작업 능력과 무단 이탈이다. 무주농협은 이 두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검증절차와 현지면접 제도를 도입했다. 또 시범년도를 포함하여 3년차에 접어들면서 작업능력이 우수한 재입국 근로자를 일정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60(1년차):15(2년차):25(3년차)의 비율을 소그룹 배정에 활용하고 있다. 3년차에게 리더역할을 부여하고, 2년차는 1년차 초보자를 지도하도록 한 결과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우수사례

02

자체 개발한 인력관리 앱 활용 스마트한 맞춤형 인력중개 실시

안동와룡농협



관리 지역

안동시 전체

주요 작물

고추, 사과,
고구마, 생강

지원 형태

공공형 계절근로

문의 전화

054-850-0730

사과와 생강의 주산지, 기계화로 생산성 UP!

경북 안동은 사과, 고추, 고구마, 단호박, 잡곡 등 품질 좋기로 유명한 특산물이다. 그중에서도 안동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사과와 생강을 꼽을 수 있다. 안동 사과는 빛깔이 곱고 당도가 높으며 과육이 단단하여 안동을 대표하는 명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 농식품부가 주관한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발에서 대통령 상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생강은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고 저장성이 좋은 품목으로 가을에 한꺼번에 수확한 햇생강을 저장해놓고 1년 동안 유통하는 특성이 있다. 전국에서 생강 재배가 가장 활발한 경북 지역 내에서도 안동이 생강 주산지로 자리 굳힐 수 있었던 것은 안동시와 농협이 협업해 운영하는 생강출하 조절센터를 통해 생강을 저장하고 유통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안동와룡농협은 그동안 별도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 및 소형 트랙터 무료 임대지원, 해충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들을 위해 연 2회 드론 방제 작업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농가 밀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3년부터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주체로 선정되어 숙련된 계절 근로자들을 관내 농가에 매칭해주고 있다. 2022년 라오스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후, 2023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026농가에 1만1,012명을 누적 공급하였다. 안동와룡농협 측은 대면 면접을 통해 농기계 사용 가능자와 농사 경력자를 적극 선발하는 한편, 트랙터 운전 등 농기계 사용법을 영상으로 사전교육하여 작업현장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 '안동사과 정말 맛있어요!' 직접 수확한 사과를 맛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들
2. 사전 영상교육을 받은 계절근로자가 소형 트랙터를 운전하여 작업하고 있다.
3. 안동와룡농협에서 자체개발해 운영중인 인력관리플랫폼



안동와룡농협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총개센터									
(외국인)근로자 신청									
2024년 11월									
구분	1	2	3	4	5	6	7	8	9
신청	1	2	3	4	5	6	7	8	9
인정	1	2	3	4	5	6	7	8	9
신청	1	2	3	4	5	6	7	8	9
인정	1	2	3	4	5	6	7	8	9
신청	1	2	3	4	5	6	7	8	9
인정	1	2	3	4	5	6	7	8	9
신청	1	2	3	4	5	6	7	8	9
인정	1	2	3	4	5	6	7	8	9

농가주 누구나 쉽게 자체 플랫폼에서 직접 인력 신청

안동와룡농협은 근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용 지원을 위하여 자체 인력관리 플랫폼 ‘NH 시즌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농가가 직접 플랫폼에 접속해 원하는 농작업 날짜를 지정하면 농협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계절근로자를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안동시와 협력해 구축한 인력관리플랫폼은 기초 개발 작업만 2개월이 걸린 사업이었다. 고령의 농가주들도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가독성이 좋은 포맷으로 디자인하여 대부분의 농가에서 큰 어려움 없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자체 인력관리플랫폼은 작업 가능한 인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인력 현황과 근로자의 농작업 이력, 농작업 분야 특기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로 제공하여 농가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NH 시즌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농협 측은 근로자의 특성과 농가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또 인력관리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가 작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전문업체에 시스템 관리를 맡기고 주기적으로 플랫폼에 필요한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안동와룡농협 김영호 상무는 “인력관리플랫폼을 통해 수확작업에 능숙한 인력, 예취작업기를 잘 다루는 인력, 트랙터 운전이 가능한 인력 등 근로자들의 작업 이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농가가 원하는 작업자를 배정하고 근로자 배정 알림 문자까지 발송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배정된 인력들을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농가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작업 현장까지 수송해주고 있어 이용 농가의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안동와룡농협이 이처럼 진일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내국인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시가 바쁜 영농현장에서 농가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현장경

험 기반의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덕분이다.



1. 영상과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계절근로자 영농교육 2. 외국인 인력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삼겹살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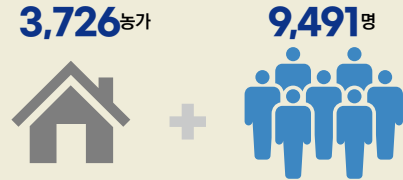
안동와룡농협은 계절근로자가 업무 후 개인적인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1인 1실의 기숙사를 배정하고 있으며, 라오스 현지 요리사 2명을 고용하여 현지식 식사도 제공한다. 체력단련실을 상시 개방하여 인력들이 여가시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내 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필요한 때 건강검진 및 병원 진료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계절근로자들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노동법 및 성희롱, 언어폭력 관련 공지를 현지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으며, 통역가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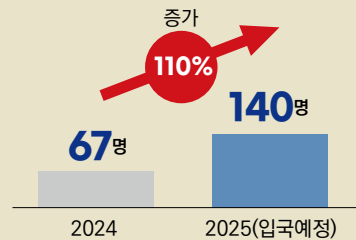
언어폭력이나 인권침해 관련 불만이 접수된 농가는 다음 인력 배정 때 패널티를 주고,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가에는 인력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조치하고 있다. 또 인력들이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통의복체험 같은 한국문화 탐방과 농작업자 생일파티등 문화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지원 성과

1. 계절근로자 매칭 (2024.10 기준)



2. 계절 근로자 도입



3. 자체 플랫폼 운영 현황 (2024.11.13 기준)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

POINT



안동와룡농협
신정식 조합장

자체 플랫폼으로 관리인력은 줄이고, 인력가동률은 높이고!

안동와룡농협은 2024년부터 자체인력플랫폼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운영해보니 근로자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3명분의 업무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력가동률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 우리의 모델을 참고하여 타 지역농협들도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가들과 농작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급여와 스케줄 관리인데 장부 정리는 물론 근무기록까지 데이터로 관리하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현하여 농가와와의 원활한 소통에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우수사례

03

전년대비 계절근로자 2배 증원 3개군 MOU로 인력가동률 배가

함양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관리 지역

함양군 1읍·10면

주요 작물

사과, 양파, 딸기, 고추

지원 형태

공공형 계절근로

문의 전화

055-962-5540

10가구 중 4가구 전업농, 쌀농사 줄고 양파·사과 등 특산물 증가

경상남도 함양군은 지리산, 덕유산을 끼고 형성된 게르미늄 토양과 밤낮 기온차의 영향을 받아 사과, 양파, 딸기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농촌마을이다. 함양의 사과는 과육이 단단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양파는 저장성이 좋아 상인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행안부와 함양군의 통계에 따르면 함양군의 전체 인구는 2023년 기준 3만7천여 명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은 43.4%에 달한다. 논밭의 구성비는 논이 67%, 밭이 33%로 논의 면적이 밭보다 2배 이상 넓다. 하지만 전통 식량작물인 쌀농사는 해마다 줄어들고 양파, 사과 등의 특산물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100% 농사만 짓는 전업농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60~65% 차지하는 노동집약적 영농이 많아지면서 인력 수급과 인건비 현실화는 농가구들이 당면한 이슈였다.

함양군은 농가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고용허가제(E-9비자)는 최소 3년의 계약을 유지해야하므로 농번기와 농한기가 뚜렷하고, 짧은 기간 집중적인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촌에서 활용이 어려운 반면,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소규모 다품종을 생산하는 함양지역 농가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에 적합한 고용제도이기 때문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운영은 함양군 5개 지역농협이 공동설립한 함양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함양조공법인)이 맡아 전문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1

1. 9년의 교류도시 베트남 남짜미현과 2022년 8월 계절근로자 교류 MOU 체결
2. 2024년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들이 사과농장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있다.
3. 농가 현장 투입 전에 농작업 안전교육을 이수중인 근로자들



2



3

산삼 재배지로 인연맺은 베트남 남짜미현과 MOU

함양군은 산삼 재배지라는 공통점으로 출발하여 2015년부터 신뢰의 교류관계를 이어온 베트남의 남짜미현과 2022년 8월 계절근로자 교류 MOU를 체결하고,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18명을 도입했다.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1,258농가에 순환배정된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소농들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24년에는 전년도 근로자 중 성실근로자 10명을 포함하여 도입 인원을 2배 규모인 35명으로 늘리고, 첫 해의 성공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도 주력했다. 함양조공법인 관계자는 “영농작업반 총괄은 내국인에게 맡기고 나머지 3명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며 함양군 마을과 농업 환경에 익숙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3명을 채용했다”면서 “여성 작업반장들은 숙소에서 작업현장까지 차량으로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는 일과 농가주·근로자 사이의 통역, 농작업 교육을 지휘하고 근무 후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체크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함양군에 따르면 “2024년 4월, 함양읍 대실길에 폐모텔을 매입하여 함양군계절근로자지원센터로 리모델링 준공하였으며 센터 내에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숙사는 3층 건물에 침실과 공용 편의시설을 갖추어 총 42명의 근로자가 입주 가능한 규모이다. “우리끼리 식당에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고 세탁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베트남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좋아요.” “함양군, 고마워요!” 기숙사 시설에 베트남 근로자들은 매우 만족감을 드

러냈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좋은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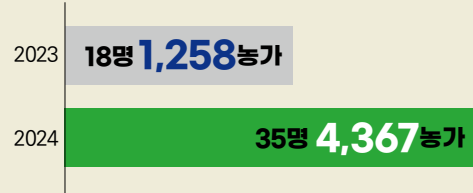
함양군-무주군-장수군은 계절근로자 교류 MOU를 맺고 유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인력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장수군, 무주군 사과 수확기에 함양군에서 일부 계절근로자를 지원한데 이어(사진 오른쪽) 함양군 양파 수확기에는 무주군, 장수군에서 계절근로자 200여 명을 도입했다. (사진 왼쪽)

함양조공법인이 이뤄낸 또 하나의 모범사례는 인근 지자체인 무주군, 장수군과 계절근로자 인력교류 MOU를 체결하여 농번기 인력 가동률을 크게 높인 것이다. 3개군은 각 지자체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유휴인력을 상호 교류하기로 협약하고 농번기에 적극 활용해서 큰 성과를 냈다. 4월 무주군과 장수군의 사과 수확기에는 함양군에서 유휴 인력을 지원했으며, 6월 함양군 양파 수확기에는 무주군과 장수군에서 200여 명의 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집중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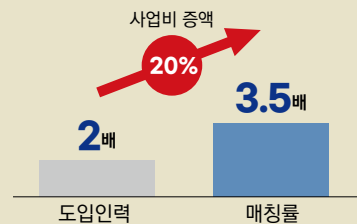
함양조공법인 측은 “지자체 간 계절근로자 교류는 인력수급이 불안정한 농번기에 인건비 상승을 예방하는 효과도 컸다”면서 “함양군의 경우 2개군에서 계절근로자를 집중지원받으면서 전년동기 대비 1인당 3만원 가량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함양조공법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독립적인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한국 문화와 규범에 적응하도록 법질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폭염기에는 오전 작업 위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들과 함께 수시로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한눈에 보는 지원 성과

1. 계절근로자 매칭



2. 전년대비 증가



3. 3개군 인력교류 MOU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

POINT



함양농협조합공동법인
정영재 대표

‘함양의 자부심’ 전용 기숙사 운영으로 인력관리 안정화

2023년 베트남 계절근로자 18명이 입국했을 때는 병곡면 마평마을 민박집에서 거주했다. 도입 인원을 두배로 늘린 2024년에는 함양읍 소재 폐모텔을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로 리뉴얼 준공하여 전원 입주시켰다. 근로자의 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리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폭행, 도박, 무단외박 등으로 1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강제출국, 반대로 10점 이상 상점을 받으면 내년에도 초청하는 상벌제를 통해 인력관리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우수사례

04

고령·취약농가 원콜 예약서비스 제공 근로자 복지강화로 이탈률 제로 도전

선운산농협



관리 지역

무장면, 아산면, 공음면

주요 작물

복분자, 수박,
멜론, 땅콩

지원 형태

공공형 계절근로

문의 전화

063-562-9604

황토 기반 특용작물 증가, 계절근로자가 가장 많은 도시

각 지역마다 유명한 특산품이 있듯이 고창 하면 떠오르는 특산품으로 복분자가 있고 그 외 멜론, 수박 등이 주요 작물로 꼽힌다. 최근 들어서는 고창 특유의 황토를 브랜드화한 작물이 인기를 끌면서 소멸되었던 땅콩 재배가 재개되고 고구마와 콩, 건강식 잡곡 등 황토를 활용한 특용작물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기계화가 많이 진전된 논농사에 비해 밭 작물의 수확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고창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만1,000여 명인데 비해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5배가 넘는 26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는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을 합친 현지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지역에 머무른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이 체류인구 증가에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고창군은 행정안전부가 2024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분류한 89개 시·군 중에서 외국인 체류인구 증가로 인구 정체를 극복하고 있는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2023년에 6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창군 농업현장에서 일하였으며, 2024년에는 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1,5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일손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9월말 기준으로 1,800명의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어 전년대비 3배가 늘어난 계절근로자를 공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선운산농협은 이 가운데 캄보디아 공공형 계절근로자 38명의 운영관리를 전담하여 300여 농가에 순환배정하고 있다.



1. 2024년 4월, 고창군과 MOU를 맺은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2. 고창군과 선운산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3.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



고창군 농촌현장에 '천군만마'가 된 계절근로자

고창군은 2024년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일하기 좋은 모범도시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복지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담하게 된 선운산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비 1억 원 외에 지자체 군비를 1억 2천만 원 추가편성하였고 각종 MOU 체결로 고용 농가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선운산농협 관계자들은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지난 1월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했다. 선발 인원의 3배수 신청서류를 받은 뒤 작업역량과 성실성, 한국어 구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인원 41명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고창군과 선운산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을 희망하는 600여 농가의 신청을 미리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의 취지와 운영시스템, 주의할 점 등 사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선운산농협 측은 “고창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대농 단위 장년층 영농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미 관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취약농과 고령농에 집중배정한다는 원칙아래 하루 단위 원콜예약서비스제를 준수하고있다”고 밝혔다. 선운산농협은 올초 입국한 41명의 근로자 중 건강, 가족문제 등으로 도중하차한 3명을 제외한 38명의 계절근로자를 운용하여 1,617농가에 5,436명의 계절근로자를 매칭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시행 첫해인데 비해 농가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아산면에서 쪽

파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장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화 한통만 하면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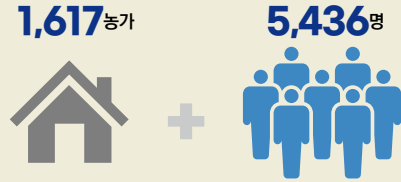
1. 멜론농장에서 작업중인 계절근로자들 2. 휴일을 맞아 여성 근로자들이 한복을 입고 고창군 지역 명소를 관광하고 있다.

고창군은 2023년에 계절근로자 전용 쉼터를 마련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대산면 소재 옛 모텔 건물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로 리모델링하여 캄보디아 계절근로자들을 입주시켰다. 4층규모의 기숙사에는 객실마다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캄보디아 언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배치하였으며 위생관리와 안전 시스템을 두루 구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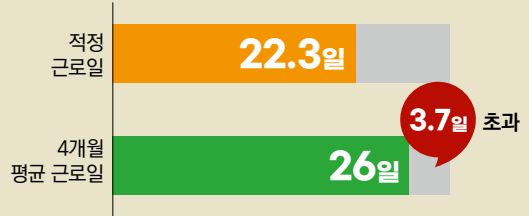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에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선운산농협 측은 “통역관과 인권지킴이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농가주와 계절근로자의 소통을 돕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이 “계절 근로자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브로커들의 접근을 막고 근로자 이탈률을 방지하는데도 큰 효과를 거두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숙소에서 식사를 직접 해먹을 수 있도록 기본 임금에 식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달 물품구입비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선운산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올해 입국한 캄보디아 근로자 중 약 50% 정도를 성실 근로자로 선별하여 내년에도 재입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지원 성과

1. 계절근로자 매칭 (2024.10 기준)



2. 인력가동률 초과 달성 (1인당 근로시간)



3. 주요 홍보 활동 (2024년)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

POINT



선운산농협
김기욱 조합장

고창의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선운산농협에서는 계절근로자들이 고창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휴일에는 농가를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추석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고창의 관광명소를 견학한 뒤 송편빚기 체험행사도 가졌는데 근로자들이 매우 즐거워했다. 고국과 가족을 떠나있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한달에 1~2회 선운산농협 관계자들과의 회식 시간을 마련하여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우수사례

05

“일손 해결, 영농비 절감에 큰 보탬”
농가 84% 만족 이끌며 ‘유종의 미’

곡성농협



관리 지역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 삼기면

주요 작물

딸기, 멜론, 블루베리

지원 형태

공공형 계절근로

문의 전화

061-363-6618

전남 곡성군은 섬진강을 낀 수려한 자연환경 덕분에 관광객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고장이면서 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기반의 도시이다. 지리적으로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7%로 소량 다품목 농업생산 체계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멜론, 토란, 딸기, 블루베리, 잣, 사과, 찰옥수수 등이 대표적인 농특산물이며 그중에서도 멜론은 특유의 머스크향과 높은 당도, 우수한 식감을 자랑하며 전국 출하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곡성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다.

곡성군의 집계에 따르면 한때 11만 명에 달했던 곡성의 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3만 명이하로 떨어졌다. 절대 인구 감소와 농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군의 농업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곡성군이 발벗고 나섰다. 2023년 9월, 곡성군과 곡성농협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라오스 볼리캄사이주 므앙타파발군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9월 21일에 곡성군-라오스 간 계절근로 인력 송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로 모든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2024년 1월 현지면접을 통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최종 선발했다. 평균 연령 만 34세, 남성과 여성 2대 1 비율로 구성된 라오스 근로자 30명은 2월 22일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하여 곡성에 도착했다. 곡성의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전국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중 시기적으로 빠른 입국이었다. 곡성농협은 건강검진에서 부적합자로 판정된 2명을 출국시키고 28명에 대해 영농교육을 마친 후 곡성군 4개 지역 187농가에 집중 투입했다.



1. 2022년 9월 21일, 곡성군-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MOU 체결
2. 2024년 1월 라오스 현지면접 모습
3. 곡성농협 관계자들이 현장 투입에 앞서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2월, 라오스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곡성농협은 공공형 계절 근로를 도입한 첫해인 만큼 근로자들이 한국의 문화와 농촌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한국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한옥펜션을 숙소로 제공하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라오스 인력을 소그룹별 현장에 배치했다. 전담 통역사를 상시 고용하여 농가주와 근로자들의 소통을 돕고,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고충상담도 수시로 실시했다.

근로자들은 과수재배 농가와 시설원에 농가에 순환배정되어 하루 8시간씩 작업하고, 작업량이 많은 시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추가근무를 했다. 곡성농협은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1,022농가에 2,728명의 인력을 투입, 농번기에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농가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1인당 월 평균 인건비는 90만 원~200만 원 이내이다. 가장 바쁜 시기 연장근무 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등을 더하더라도 1인당 10만원선으로 사설 인력센터를 통해 연결받은 인건비 지출과 비교하여 하루에 약 5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사업 종료 후 곡성농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농가주-근로자 모두에게서 만족도가 높았다. 농가주의 30%는 계절근로자를 “5회 이상 이용했다”고 했고, 96%가 “내년에도 재고용하고 싶다”고 답했다. 농가주들은 근로자들의 성실성과 작업 숙련도, 적시 인력공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근로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근로자 28명중 27명이 “내년에 또 곡성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농가주와 근로자의 전체 항목 평균 만족도는 84%로 높

게 나타났다.



1. 라오스 근로자들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작업숙련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우리다시 만나요!” 출국 전 곡성농협에서 마련한 송별식

곡성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 원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농촌인력증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기반이 되었다. 5년여 동안 센터를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인력 배정 노하우, 농가주와 근로자들의 불만과 갈등을 조율하는 경험을 축적한 탓이다.

곡성농협의 김완술 조합장은 “올해 처음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하면서 잘 할 수 있을지 우려도 컸지만 지자체와 농협이 업무 영역을 나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펼친 결과 농가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라오스 근로자 28명은 5개월의 근로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7월 18일 라오스로 돌아갔다. 곡성농협은 별도로 마련한 송별식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곡성군과 라오스 지자체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후속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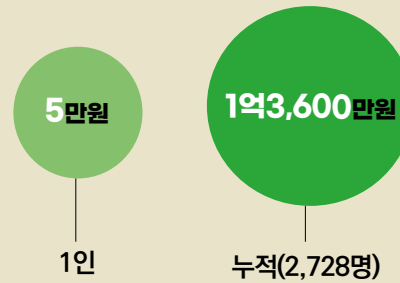
곡성군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곡성농협을 비롯해 옥과농협, 석곡농협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눈에 보는 지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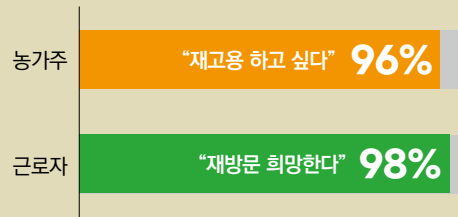
1. 계절근로자 매칭 (2024.10 기준)



2. 농번기 인건비 절감 효과



3.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

POINT



곡성농협
김완술 소장

5년 노하우로 공평배정 원칙 준수하여 만족도 높였다

현지에서 엄선해서 데리고 온 근로자들이지만 제한된 인력인데다 개인별로 작업능력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농사현장은 노지 재배와 하우스 재배에 따라 작업여건과 강도가 다르고, 농가별로 원하는 인력 수요가 달라 모든 요구를 100% 충족시킨다는 건 불가능했다. 곡성농협은 5년여 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공평배정의 원칙을 준수하며 농가들을 설득했다. 다행히 잘 협력해주어서 한달 반 정도 지나니까 시스템이 정착되었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
PART. 2
농촌인력
중개센터
우수사례

일손, 연결하다 ●



01. 봉화농협

02. 춘천시농어업회의소

03. 부여군농업회의소

04. 농협음성군지부

농촌인력
중개센터
우수사례

01

영농교육 강화하여 청년층 귀농 유도 내·외국인 복합중개로 사각지대 해소

봉화농협



관리 지역

봉화군 전체

주요 작물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메밀

지원 형태

내국인 인력 중개 +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

문의 전화

054-674-2142

4월부터 11월까지 상시 고품질 작물재배 가능한 농업도시

경북 봉화군은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메밀 등이 대표 작물이다. 봉화에서 생산된 사과와 수박은 태백 산맥 남단에 위치한 고랭지 지역의 큰 일교차 영향을 받아 당도가 높고 색이 선명하며 육질이 단단하다. 봉화의 고추는 밤낮의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을 받아 빛깔이 곱고 매운맛이 뛰어나 봉화군의 5대 특산품에 꼽힐 만큼 많은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또 메밀, 수수, 조와 같은 잡곡 생산으로도 유명하며 잡곡을 활용하여 만든 봉화의 유과도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다.

봉화군에서는 한겨울을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다양한 작물을 심고, 수확한다. 4월 고추심기, 5월 사과 적과, 5~7월 수박과 감자 수확, 8~9월 고추 수확, 10월 당근 수확, 11월에 사과 수확까지 연중 끊임없이 영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긴 시간동안 체류하며 작업할 농촌인력이 늘 필요하지만 관내에서 자체 수급하기에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에 타지역이나 해외에서 인력 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농사를 배우고자 하는 국내 인력이나, 목돈을 벌 목적으로 타국에서 온 해외인력들에게 연중 농사가 이루어지는 봉화의 농업 환경은 선호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경영상태가 열악한 영세농과 고령농들로서는 아무리 외국 근로자들이 많아도 ‘언감생심’ 일 수밖에 없었다.

봉화농협에서는 이처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농가의 일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복합증개하고 있다.



1. 봉화농협을 통해 배정된 외국인 인력들이 고추를 수확하고 있다
2. 5개국 인력이 혼합된 다국적 농작업반
3. 농가현장에서 영농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인력들



가족 같은 끈끈함으로 이뤄진 다국적 혼합형 농작업팀

봉화농협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여 농작업반 한 팀을 국내 인력 3~6명, 외국인 인력 2~4명을 혼합 구성하여 농가에 중개하고 있다.

인력중개를 총괄하고 있는 안준원 센터장은 “외국인 인력으로만 구성된 팀의 경우 농가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국내 인력으로만 구성된 팀의 경우 젊은 외국인 인력보다 기동성과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혼합형 농작업팀은 이러한 단점을 상쇄시키고 장점은 적극 활용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봉화농협은 농가와 근로자 사이의 중개를 작업반장이 주도하도록 하는 책임 시스템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우수근로자 평가 시상을 하여 인력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봉화농협은 특히, 인력 중개 후 농가와 근로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마찰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자 상담, 여성 근로자 고충 상담 창구를 상시 열어놓고 있다. 상담 시 외국인 인력들이 불편사항을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4개국에서 들어온 결혼 이민자 가족을 통역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통역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병원과 MOU를 맺어 인력들의 기본 건강검진 및 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숙박업소와 연계하여 국내외 인력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농업 인력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돕고, 농업 인력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농업근로자 기숙사’도 개소할 계획이다.



1.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상담을 진행 중인 봉화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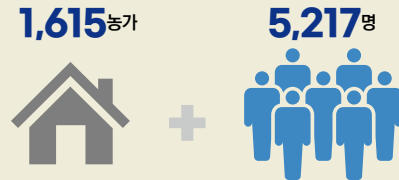


2. 우수근로자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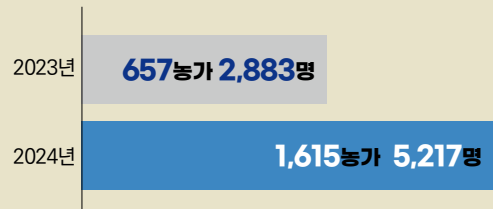
봉화농협에서는 1년에 10여 회씩 귀농을 원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한다. 단순히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작목을 어떤 방식으로 재배하는지 농사 현장에서 체험하는 실무교육까지 패키지로 진행한다. 그 결과, 2024년에는 3명의 20대 청년인력들이 농업인의 뜻을 가지고 봉화로 귀농하였다. 청년인력이 귀한 농촌인력시장에서 유의미한 결과였다. 국내 청년인력들은 연령대가 비슷한 외국인 인력들과 한 조에서 근무할 때 더 쉽게 화합이 이뤄진다. 하나의 팀으로 구성된 다국적 농작업팀의 따뜻한 일화도 있다. 얼마 전, 캄보디아 근로자의 친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팀이었던 국내외 인력들과 농협 관계자들이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부조금을 전하였고, 캄보디아 근로자는 눈시울을 적시며 감사를 표했다. 오태현 사무국장은 “가끔 다른 고용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 사례 뉴스를 접하면 긴장되는 게 사실이지만 봉화에서는 다른 국적, 다른 나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다독이면서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원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끈끈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작업의 효율도 높아서 올해 외국인 근로자 중 이탈 인력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지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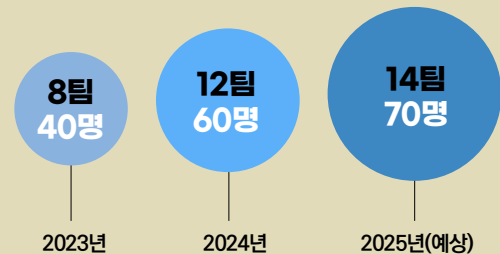
1. 인력 중개 성과 (2024.10 기준)



2. 전년대비 매칭률 증가



3. 다국적 농작업반(5인 1조) 확대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

POINT



봉화농협
안준원 센터장

시범 도입한 다국적 혼합 농작업팀 성공리에 정착

봉화농협에서는 중소농가 및 고령의 위기 농가들을 대상으로 다국적 혼합형 농작업팀을 적극 중개하고 있다. 다국적 혼합형 농작업팀은 타 지역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운영사례로 2023년 하반기부터 실시하였다. 봉화농협에서는 우수 작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작업자를 신청한 농가를 미리 방문하여 상담한 후 니즈를 파악하여 중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농가의 사후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농가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우수사례

02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농복합도시 5060세대 중심 인력수급의 활로 열다

춘천시농어업회의소



관리 지역

춘천시 전체

주요 작물

복숭아,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멜론

지원 형태

구인농가 - 구직자 매칭

문의 전화

033-252-0038

유입인구 꾸준히 증가, 복숭아·토마토 원예시설 작물 활발

춘천은 도심과 인접한 입지여건으로 인해 하우스 시설재배가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화작물로는 토마토, 복숭아,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멜론 등이 있다. 특히 복숭아는 조선시대 문인 허균이 춘천의 대표작물로 꼽았을 만큼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춘천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근래들어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몇 안되는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춘천시의 통계에 따르면 구 도심과 농촌마을의 인구가 지속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신규 주거단지가 형성된 신도심의 유입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는 지난 5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여건이 좋은 편이어서 퇴직자, 은퇴자, 직장인 등이 관내에 정주인구로 머무는 비중도 높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코로나 시기에는 농공단지, 대형마트, 학교 등 관내 여러 기관이 휴업을 하면서 농업 인력수급이 오히려 원활해지는 역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면서 농업인력들이 각자의 일터로 복귀하게 되어 유휴인력 수급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춘천시농어업회의소는 2021년 6월부터 농촌인력증개센터 문을 열고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춘천시 곳곳에 농촌인력증개센터 안내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오프라인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농어업회의소,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구인광고 배너를 업로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였다. 또한 구인농가-구직근로자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춘천시농어업회의소 가입농가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소식지를 배포하면서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하였다.



1. 주요 교차로마다 농촌인력증개센터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2. 농촌인력증개센터에서 영농작업반장들이 회의중인 모습
3. 영농작업반장이 신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귀농귀촌센터와 연계, 이론부터 실무까지 전문 농업근로자 양성

춘천시농어업회의소는 회원사로 가입된 14개의 농업인단체, 9개소의 지역농협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센터 개소 이후 3년동안 총 3,160농가에 인력을 매칭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젊은층과 중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관내의 지속가능한 농업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력중개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공기업,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 춘천시의 특성상 공무원 퇴직자나 기업 은퇴자 등 관내의 유희인력이 많아 이들을 실전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영농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외부 도시에서 유입되거나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춘천 농업현장에 매칭하고 있는 인력의 평균 연령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젊다. 현장투입 인력 중 50~60대 연령층이 66%에 달해 작업의 속도나 영농교육에 대한 습득력이 빠른 편이다. 신규 고용인력의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센터와 연계하여 이론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영농작업반장들이 농작업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농작업반장들은 지역 내에 거주하며 농사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들로 꾸렸다.

차종원 센터장은 “실무교육을 통해 숙련된 농업인력들이 농가에 배치되어 농가주들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영농작업반장들이 매일 SNS를 통해 작업 현황과 근로자의 근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근로자와 농가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을 도맡아 진행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춘천시농어업회의소는 5060세대 베테랑 농사경력자를 영농작업반장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근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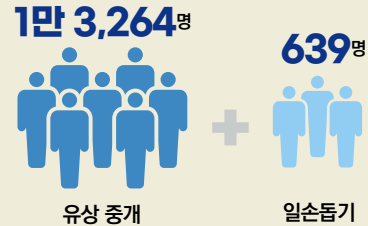
영농작업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염 모씨는 “함께 팀을 구성해 일을 하고 있는 영농작업반은 모두 시설채소 분야의 베테랑들이다. 영농작업반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체크하여 농가주와 직접 대면하는 불편함 없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해결하는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도록 영농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춘천시농어업회의소는 영농교육 외에 안전교육에도 신경쓰고 있다. ‘아차사고(현장상황,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사고가 날 뻔한 것)’ 사례를 수집하여 만일에 일어날 사고에 철저히 대비시키고 있으며 농작업 교육, 실무교육 등을 인력중개센터에서 적극 지원하여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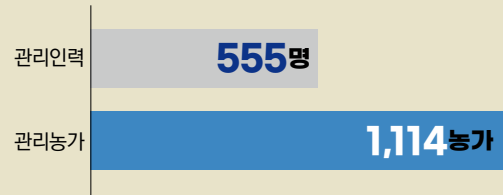
사전인터뷰를 통해 각각 원하는 일터와 적합한 작업자를 매칭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 긴급한 인력 요청이 있을 때에도 영농작업반장이 관리하고 있는 인력풀을 가동하여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춘천시농어업회의소는 2024년 10월 기준 1,114개의 농가에 1만3,264명의 유상인력을 중개하였으며 무료 일손돕기 인력도 639명 공급하였다.

한눈에 보는 지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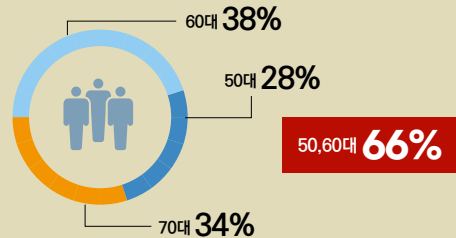
1. 인력 중개 성과 (2024.10 기준)



2.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2024.10 기준)



3. 근로자 평균 연령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

POINT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차종원 센터장

청·장년층 베테랑 농업인이 손잡고 미래로 한걸음 더!

춘천시농어업회의소가 매칭하는 농촌 인력들은 50대가 28%, 60대가 38%로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으로 젊은 유휴인력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며 최근 들어 청년 농업인들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도시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를 통해 농업인들끼리 서로 품앗이를 해주거나 귀농을 돕는 경우도 많으며, 영농작업반을 통해서는 농가와 근로자들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어 작업 분위기도 매우 좋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우수사례

03

충남도 연계한 도농중개 인력풀 활용 맞춤형 농업인력 적재적소 매칭 성사

부여군농업회의소



관리 지역

부여군 전체

주요 작물

수박, 멜론,
방울토마토

지원 형태

구인농가 - 구직자 매칭

문의 전화

041-830-2912

농업종사 인구 44%, 천혜의 환경에서 재배한 부여10품 인기

충남 부여군은 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가 44%를 상회하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농지에 해당하며 금강유역의 기름진 미사질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지하수를 기반으로 생산된 부여10품은 전국에서 명성이 높다. 부여10품 중에서도 수박, 토마토, 멜론 등 7개 품목은 생산량 점유율로 전국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 인삼 등 60여개의 대표 특산물을 ‘굿뜨래’ 공동브랜드로 수출하여 전 세계적으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부여군의 집계에 따르면 농업인구는 20년 전 4만명 대로 정점을 찍은 이래 매년 감소하여 현재는 절반 정도가 줄어든 약 2만2천 명이다. 부여 인구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40.6%에 달하며 농업인력의 대부분은 70~80대의 초고령에 해당되어 서서 일하거나, 많은 체력을 요하는 농작업 현장에 투입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실정이다. 부여군은 농업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4.8ha의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하고, ICT 스마트팜 통합관제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스마트팜 기술이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령농업인의 일자리 창출 문제와 농업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남아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여군농업회의소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며 충남도와 연계한 충남형 도시농민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도시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농가들의 요구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맞춤형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여군과 인근 지역인 청양, 서천, 태안, 보령군까지 인력수급 연계지역을 넓혀 각 지역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부여군 농민회와 연합하여 기업, 단체, 대학생 봉사단 등의 일손돕기를 중개하고 있다.



1,2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남성근로자들이 과수농가에서 비료주기 작업과 토양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다.

3.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봉사단



외부 농업인력 유입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적극 홍보

부여군은 남성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특작물의 작업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남성인력과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땅을 파거나 운반 작업 등 힘이 요구되는 작업에 남성인력을 요청하는 농가주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외부인력 유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수막, 전단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부여군농업회의소의 남성인력 매칭 비율은 전체의 20%에 육박하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을 위해 지역의 숙박업소와 연계하여 단체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노지재배 작업에 비해 계절을 많이 타지 않는 하우스 재배의 경우, 숙련되고 세밀한 작업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에 거주하는 고령층과 여성인력들을 현장에 배치한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농가들은 숙련된 작업자들을 원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구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작업현황을 기록한 데이터를 통해 농가의 수요와 작물특성에 맞춘 경력자를 최대한 배치하고 있다. 초보 작업자나 해당 작물에 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농가 투입에 앞서 영농작업반장을 통해 체계적인 현장교육도 진행한다.

이광구 센터장은 “부여군 농촌인력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역의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차량이 없는 고령의 작업자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영농작업반장을 중심으로 차량이 있는 작업자들과 한 팀으로 구성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이동수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던 작업자들도 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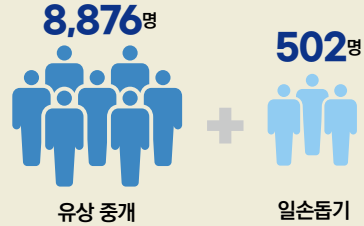
1. 비닐하우스 작업에는 농가별 작물에 맞춰 고령층과 숙련된 여성인력들을 중개하고 있다.
2. 남성인력들이 마늘밭 멀칭작업을 하고 있다.

부여군농업회의소에서는 2024년 10월 기준 8,876건의 유상 인력중개와 500여 명의 무상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일손돕기 참여자는 421명이지만 일회성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고 연간 3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단체당 1회 평균 참여자 수도 45~50명에 달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륜아 인력국장은 “농민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들은 농업에 뜻이 있는 예비 농업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러 온다기 보다는 농업과 농사에 대해 배운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 농가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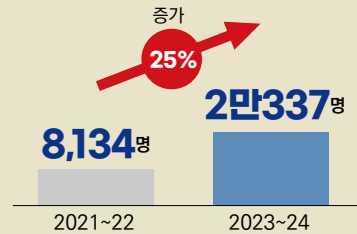
부여군농업회의소는 지속적인 인력중개를 위해 근로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근로자와 농가주들의 어려움을 체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력중개사업 외에도 농가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재배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의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다. 제품 사진 촬영과 블로그 마케팅 교육, 스마트 스토어 개설 등 다양한 작물을 여러 경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눈에 보는 지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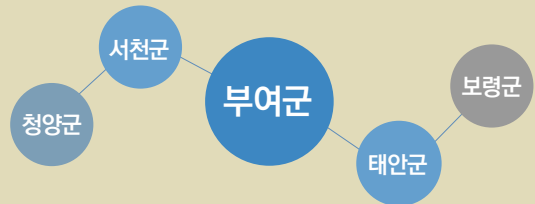
1. 인력 중개 성과 (2024.10 기준)



2. 3년간 유상중개 증가 (2024.10 기준)



3. 도농인력중개 인력풀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

POINT



부여군농업회의소
이광구 센터장

군별 전담관리자 배정, 타지역과 폭넓은 연계로 숙련인력 확보

부여군농업회의소는 부여군 전체와 청양, 서천, 태안, 보령 등 충남의 인근 지역까지 연계한 다양한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어 구인농가와 구직자의 선택지가 넓다는게 장점이다. 도농인력 중개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도시 농작업 참여자와 충남도 자체보유 인력들을 농가들이 원하는 작업자의 성향과 작물의 재배 특성, 경력 유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매칭하고 있다. 특히, 타 지역 영농작업반과 원활한 연계를 위해 군별로 전담관리 인력을 운용하면서 숙련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우수사례

04

지역민 중심 영농작업반 20개 운영 1농가-1영농작업팀 상시 매칭 정착

농협음성군지부



관리 지역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주요 작물

고추, 복숭아,
수박, 사과, 쌀

지원 형태

구인농가-구직자 매칭

문의 전화

043-870-0211

음성 브랜드로 상품화한 고추, 복숭아, 수박 인기

충북 음성지역의 특산물은 고추, 복숭아, 수박, 사과, 쌀 등을 꼽을 수 있다. 음성의 양지바른 밭에서 재배하는 음성 청결고추는 이 지역 최대 특산물로써 특유의 매운맛과 향기, 광택이 곱고 선명한 색깔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생산량 규모로 전국에서 상위권이다. 그 외 ‘음성 햇사래복숭아’ ‘음성 다올찬수박’ ‘음성 명품쌀’ 등 음성 브랜드를 내세운 농산물들이 전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음성군은 농촌지역과 산업단지가 함께 조성되어 있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유입비율이 높은 편이다. 체류중인 외국인을 포함하여 2014년, 전체 인구가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9만 명대에 머물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전체 인구는 9만377명, 농업 인구는 1만5천 명 이하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의 감소와 비례하여 농업 인구도 매년 5~6%씩 줄어들고 있으며, 소규모 농업인들이 경작을 그만두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어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충북도가 농번기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하루 4시간씩 농작업을 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도심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음성의 깊은 농촌마을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협음성군지부가 2023년 3월, 음성군의 농촌인력컨트롤타워를 표방하며 인력중개센터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농협음성군지부는 음성읍과 소이면, 원남면 등 1개읍 2개면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관할 지역 내 120여 농가의 인력공급을 돕고 있다.



1. 농협음성군지부 2층에 마련된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상담중인 모습
2. 2023년 3월 농협음성군지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설립 현판식
3. 거점지역에서 수송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



단기간 인력중개 시스템화를 통한 성공적 사업 정착

농협음성군지부가 수행하는 인력중개센터 업무는 정부 주도의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것인 만큼 고령농, 소규모 영세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어려운 농가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정선의 인건비를 선도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력중개 수수료 등 영리행위는 당연히 배제하고 있다.

“지난해 봄, 센터를 개소했을 당시 음성군에는 10여개 이상의 사설 인력중개센터가 활동중이었어요.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 반면 사업수행 과정에서 그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일궈온 삶의 터전을 방해하게 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영기 센터장은 “다행스럽게도 농협음성군지부와 사설인력센터들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면서 별다른 갈등 없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음성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의 대부분은 음성군과 경계지역인 괴산군 등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다. 관내 거주 인력으로 구인농가와 구직자를 매칭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평균 연령층이 높고, 여성 인력에 편중된 측면이 있지만 마을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본 경험자들이거나 마을에서 생산하는 주요 특산물의 재배법에 익숙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게 농가주들의 설명이다.

농협음성군지부는 2023년 첫 해에 영농작업반 9개를 꾸려 1,200농가에 4,704명의 인력을 매칭하였으며 2024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1,002농가에 5,006명의 인력을 매칭하여 이미 전년도 실적을 훌쩍 넘어섰다. 여기에 무료 일손돕기

인력 508명까지 더하면 올들어 약 6개월 동안 5,500명이 넘는 일손을 집중공급하는 성과를 올린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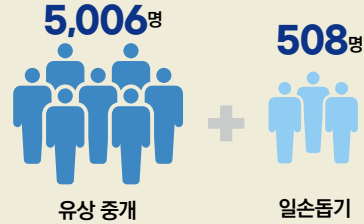


"농사일도 해 본 사람이 잘해요!" 농협음성군지부는 마을농사 경험이 풍부한 숙련인력 중심의 인력중개로 작업효율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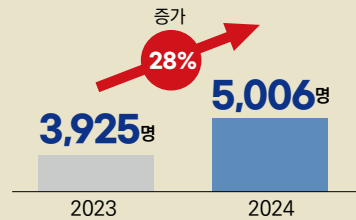
가을 농번기 일손을 조달하기 위해 농촌인력센터상
담소를 방문한 농가주 신 모씨는 “농촌인력센터 덕
분에 지난 봄에 고추대 제거 작업에 일할 사람을 수
월하게 구할 수 있었다”면서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
한 서비스 차원에서 마련한 창구인만큼 안심이 되
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농협음성군지부는 영농작
업팀 전원에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
센터 유니폼 조끼, 모자, 장화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기본 일급여 외에 간식비를 별도 지급
하고, 신규 인력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정의 교
육참여비를 지급 항목으로 신설했다. 송재철 농정지
원단장은 “음성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자체에서
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지역농협은 지역
민 대상의 인력중개 업무를 분담하여 집중도를 높이
고 있다”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
터의 경우 외부인력을 유입하지 않고도 구인농가와
구직자를 지역 내에서 상시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정
착시킨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서 “내
년에는 보다 많은 지역의 농가주들에게 체계적인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음성군 관내의 농협, 농업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갈 것”이라
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지원 성과

1. 인력 중개 성과 (2024.10 기준)



2. 전년대비 증가



3. 1농가-1영농작업반 연중매칭



이것만은 우리가 최고!

POINT



농협 음성군지부
진영기 센터장

마을 농사 잘 아는 원주민 연결해주니 손발이 “척척”

농협음성군지부에서 매칭하는 근로자들은 90%가 음성군 주민이며, 나머지 10%도 과산군 등 인근 지역 거주자들이다. 성비로는 90% 이상이 여성이지만 주요 농작물의 특성상 힘을 많이 쓰는 남성인력보다는 꼼꼼하게 수작업을 잘 해주는 여성인력의 작업능률이 높다. 대부분 마을에서 크고작은 농사를 직접 지어본 분들이라서 주요 농작물을 어떻게 다루어야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팀원들끼리는 물론 농가주와도 친분이 두터워 편안한 분위기로 작업하고 있다.

PART. 3

농업인 우수사례

일손, 답을 찾다 ●



01. 농업 경영인

무주 율이네 농장
이종덕 대표

02. 귀농 근로자

제천 달재농장
이용태 농부

농업 경영인
우수사례

01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시 고용하면서 인건비 줄이고, 경작면적 늘렸어요

울이네 농장
이종덕·김민영 부부



소재 지역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주요 작물

토마토, 수박,
천마, 버육묘

중개 기관

무주군, 무주농협

운영 형태

농가형 + 공공형 계절근로

후계농업인으로 가업을 이었지만, 일 할 사람이 없는 현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9월의 오후,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이종덕(50), 김민영(45) 부부가 운영하는 울이네 농장에는 5명의 근로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5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울이네 농장에서 월급제로 한시 고용한 농가형 계절근로자들이다.

올 봄부터 7명의 근로자들을 운용하다가 2명은 비자기간 만료로 출국하였고, 현재는 라오스 근로자 2명과 캄보디아 근로자 3명이 남아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농장 근처에 장기임대로 마련한 농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울이네 농장에서 하루 8~10시간 정도 토마토, 오이, 수박, 천마, 벼육묘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군입대를 앞두고 영농에 종사하면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복무로 대체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농업의 길로 들어섰어요”

이종덕 대표는 올해로 농업 경력 30년차에 접어든 중견 농업인이지만 고령층이 많은 무주에서는 젊은 농업인에 속한다. 무주 농가의 절반 이상이 40년 이상 농사를 지은 고령층인데 비해 농사를 이어갈 2세, 3세가 있는 곳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호남통계청이 2020년 실시한 ‘무주군 농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주 지역 농민 가운데 30~4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가구는 8.4%에 불과하며 그들 중 후계 농업인이 있는 농업인은 14.1%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래 친구들이 도시로 취업하고, 도시의 삶을 선택할 때 이 대표는 선대를 이어 영농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와 함께 무주의 농업을 이어나갈 2세는 드물고, 일할 사람도 없는 암울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다.



1. 계절근로자들이 하우스에서 잘 익은 토마토를 선별하여 수확하고 있다.
2. 가을에 출하될 오이 포장 작업 중
3. “울이네 농장 사랑해요!” 환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근로자들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생산효율 극대화

울이네 농장은 안성면에서 1ha 내외의 경작지를 3곳이나 운영하고 있는 대농에 속한다. 처음에는 무주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일부 지원받아 운용하다가 지금은 농가형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운용하면서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때만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신청하고 있다. 무주군에서는 지자체와 MOU를 맺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의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884명이 농가형으로 활동중이다.

울이네 농장이 공공형 계절근로자에서 농가형 계절근로자 중심으로 운용방식을 전환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무주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한정된 인원을 고령농, 소작농에 우선 순위로 배정하는 원칙이라서 대농에 속하는 울이네 농장이 필요한 인원을 적기에 모두 배정받기 힘들다. 둘째,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동숙소에서 숙식을 함께 해결하기때문에 출퇴근시간에 같이 이동해야 하고, 농가 사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힘들다. 한 여름 불볕더위에는 동트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일이 많을 땐 연장근무가 필요한 농가주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인이었다. 셋째, 소규모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순환배정되는 공공형 계절근로의 특성상 월급제 고용에 비해 하루 인건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기에 전 기간 이용해야 하는 농가주로서는 부담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비해 농가형 계절근로자들은 농가주가 인근에 숙소를 마련해주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근로자와 월급여 형태로 계약을 하기때문에 공과금, 문화비 등 부대비용 지출을 감안하더라도 공공형 계절근로보다 비용면에서

는 효율이 높았다. 이종덕 씨에 따르면 “울이네 농장은 농가형 계절근로자를 상시활용하면서 근로자 1인당 평

균 20~25% 가량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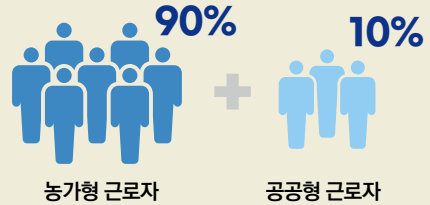


무주군 반딧불 축제(왼쪽)와 회식자리(오른쪽)에 함께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과 가족같은 친목을 쌓고 있다는 울이네 농장 이종덕 김민영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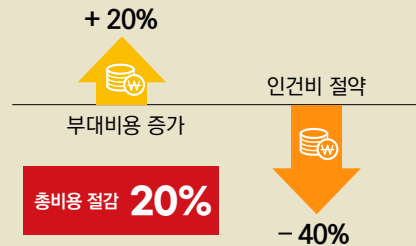
“이제 계절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 짓기 힘들어요. 우리한테는 소중한 친구들이라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 김민영씨는 율이네 농장에서 사장님, 사모님 따위의 호칭은 없다면서 근로자들끼리는 물론이 대표 부부와도 형, 누나로 통한다고 했다. 지난 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무주의 상징 반딧불 축제도 다녀오고 벚꽃 나들이도 했다. 한달에 최소 2회 정도는 다같이 모여 회식 시간도 갖는다. 김민영씨는 “가끔은 작업이 끝난 뒤 즉석 삼겹살 파티도 하는데 국적이 다른 근로자들끼리 친목을 다지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회식이 큰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다. 이종덕 대표는 “무주군과 무주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면서 과거에 비해 인건비가 적정수준으로 안정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 “절감되는 인건비 만큼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최근 3년간 전년대비 경작 면적을 30% 이상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최고 50% 이상 경작 면적을 늘리고 계절 근로자도 3명 늘린 1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과 배려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지원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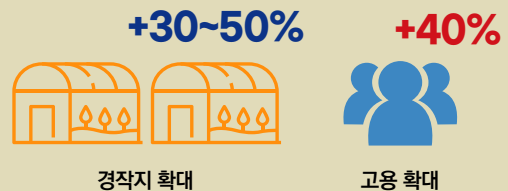
1. 계절근로자 운영 비율



2. 농가형 계절근로 활용 효과



3. 비용절감에 따른 변화



이런 점이 좋았어요

SAY!!



율이네 농장
이종덕 대표

언제, 어떤 문의를 해도 친절하고 빠른 피드백 최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달리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근로자 관련해서 농가주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 부지런하고, 발빠른 아내가 귀찮을 정도로 문의한 내용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주군청의 박우진 무주관남께서는 빛의 속도로 필요서류를 보내주셨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담당하는 무주농협과 ‘농사짓는 군수’로 불릴 정도로 농촌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군수님께서 두루 신경써준 덕분에 근로자 인건비도 많이 안정화되었다. 무주군의 모든 관계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귀농 근로자
우수사례

02

제천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결되어 귀농의 길 찾고, 인생 2모작 꿈꾸다

달재농장
이용태 농부



소재 지역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요 작물

고추, 사과

중개 기관

제천시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형태

농가 파견근로 + 자가 경작

제천 봉양마을에서 ‘달재아재’로 정착한 도시농부

올해로 만60세, 환갑의 나이에 이용태씨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제천 봉양마을에서 그는 ‘달재아재’로 불리운다. ‘아재’는 자신보다 윗항렬의 남성 친척을 부르는 순 우리말이고 ‘달재’는 제천의 상징인 박달재의 줄임말이다. 처음 낯선 농촌마을로 들어왔을 때 여러 사람이 부르기 쉬운 친근한 호칭을 고민하다가 두 단어를 조합해 이름 대신 쓰고, 직접 운영하는 조그만 농장도 ‘달재농장’으로 이름을 지었다.

달재아재 이용태 농부는 제천으로 귀촌하기 전 경기도 김포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했다. 아파트, 항공시설, 군부대 등에 납품하는 자동문 제조 및 설치 업체를 운영했는데 몇 차례나 힘든 고비를 겪어야 했다. IMF 시기에는 대출금액의 46%를 이자로 감당했던 때도 있다. 이후로도 미국발 금융위기, 인건비 상승, 값싼 중국제품의 난립 등 계속되는 악재와 고군분투하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설계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사업을 정리하고 아내가 정년을 맞기 전 귀농해서 자리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내려온 곳이 지금의 제천이다. 임대료가 싼 경작지를 수소문하던 끝에 제천시청을 통해 백운면 소재 사유지 500평을 얻어 일주일중 나흘은 집에서 머물고, 사흘은 제천에서 머물며 농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비교적 재배가 쉽다고 해서 시작한 오가피 농사는 습지 토양을 견디지 못하고 장마철에 모두 괴사해 버렸다. 첫 농사 실패 후 봉양읍 공전리 입구에 경작지를 얻어 고추농사를 지었는데 어설픈 귀동냥에 의존해 짓다보니 또 실패했다.



1. 제천의 사과농장에서 인력센터 동료들과 사과잎 따기 작업을 하고 있는 이용태 농부
2. 겨울철 사과나무 전정작업은 전문지식과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3. 실패를 거듭한 끝에 작년부터 자가 농장에서 직접 농사지은 고추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를 획득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20여 농가 다니며 다양한 농사법의 전 과정을 습득

실패를 거듭하고 망연자실하던 어느 날, 거리에 내걸린 제천시농촌인력증개센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현수막을 발견한 것이 이용태씨 귀농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처음 내려올 때 2,500만원이 든 통장이 전부였어요. 가족한테 일체 도움을 받지 않고 귀농을 준비하겠다고 각오하고 왔지만 생활비와 영농자금으로 쓰이면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여가고 있을 때였죠. 돈도 없고, 남의 집 농사를 하면서 제대로 배워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인력증개센터를 통해 20여 농가를 소개받으며 배추, 브로콜리, 오이, 단호박, 고추, 약초를 파종하고 재배하는 방법, 퇴비작업과 멀칭작업(식물재료로 농사지를 흙을 덮는 과정), 수확과 저장창고 보관법까지 농사의 전 과정을 배웠고, 배운 것을 자신의 농장에 적용했다. 모든 일과를 마친 밤시간에는 농사에 필요한 공부에 매진하여 방송통신대 농학과,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고 관련 자격증만 10여 개 이상 취득했다. 한겨울 냉동탑차를 개조해 만든 농막에서 생활할 때 냇가에서 머리를 감으면 바로 얼어붙어 고드름이 될 정도로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지만 새벽녘부터 해가 저물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영농일지를 기록했다. 궁금한 것은 인력증개센터를 통해 알게 된 농가주들을 찾아다니며 방법을 터득해 나갔다.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에 지금은 나름 실력있는 농사기술 전문가로 인정받기에 이르렀고, 농한기에도 고난도 작업을 하러 나간다.

“겨울에는 사과를 다 수확하고 난 후 다음 해 농사를 위해 사과나무의 틀을 잡아 주는 전정작업을 나가고 있어요. 나무를 잘못 만지면 다음 해 과일농사를 망쳐

버리기때문에 나무를 볼 줄 알아야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일당도 높고요.”



1. '제천시소농가연합회'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용태 농부
2. 선진지 견학차 여주의 로컬푸드를 방문하여 과일코너를 사진에 담고 있다.

2023년 이용태씨는 완전히 귀농했다. 새벽과 저녁엔 자신의 농장을 살피고,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농촌인력센터 차량을 운행하여 여성인력들을 수송하고, 그들과 함께 남의 집 농사일을 돕는다. 1인 3역을 해내며 바쁘게 살고 있는 와중에 최근 의미있는 일을 하나 더 시작했는데 바로 제천의 소농들이 주축이 된 ‘제천시소농가연합회’의 회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 것. 1년을 땀흘리고 고생해도 연수입이 1천 만원을 넘지 못하는 영세농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소농들이 모여 농사 신기술도 공유하고, 직접 지은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모임이다.

참여 동기에 대해 이용태씨는 “최소한 지금의 3배로 농가소득을 끌어올려 도시 최저임금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귀농귀촌에 도전한 4년 6개월, 술한 어려움과 좌절에 부딪치며 초보농부에서 켄농부로 성장중인 달재아재 이용태 농부는 “지금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기에 누구에게든 퇴직없는 영원한 직장으로 귀농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력중개센터 이용 만족도

1. 매칭 과정 만족도



2. 일자리 만족도



3. 사후관리 만족도



4. 주변 추천 의향



이런 점이 좋았어요

SAY!!



달재농장
이용태 농부

“돈도 벌고, 농사도 배우고, 농촌인맥도 쌓고!”

귀농은 이론만으로 되는게 아니고, 자금이 있다고 쉽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거듭된 실패를 통해 배웠다. 미래에 귀농귀촌을 생각한다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사현장에서 부딪혀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의 경우 사업을 정리한 후여서 영농자금도 여유있게 준비하지 못했다. ‘돈 주고도 못사는 게 경험’이라는데 영농자금을 벌면서 농사기술을 배우고, 농촌의 인맥도 쌓을 수 있었으니 귀농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
PART.4
일손돕기
우수사례

일손, 더하다 ●



01. 기업

(주)상지건축

02. 대학교

서원대학교

일손돕기
기업
우수사례

01

경남농협이 다리 놓아준 15년의 아름다운 동행

(주)상지건축



자매결연 지역

경남 의령군 수암마을

지역 특화작물

쌀, 콩, 고추, 마늘,
양파, 감자

중개 기관

경남농협

봉사활동 실적

4,500명(15년 누적)

“지금까지 수십 차례 수암마을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처음 왔을 때 봤던 어르신들 중 지금은 작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주)상지건축 박창석 전무는 2010년 수암마을과 자매결연 이후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의 생산활동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주)상지건축과 의령군 수암마을의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2000년대 초 중국의 WTO 가입, 한-칠레 FTA 타결 등 농업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업, 농촌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자 농협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1사1촌 운동’이 불길처럼 번졌다. 이 무렵 경남농협이 다리를 놓아준 것이 계기가 되어 (주)상지건축과 의령군 수암마을도 2010년 11월 27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까지 15년간 한결같은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

수암마을은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아름다운 농촌마을이다. 벽화산과 장재산 계곡을 따라 펼쳐진 소규모 경작지에서 40여 가구가 채 안되는 마을주민들이 쌀농사를 짓고,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부산에 기반을 둔 (주)상지건축은 1974년 김동회 건축연구소로 출발하여 국내 유수의 건축설계 감리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이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기념사에서 허동운 상지건축 회장이 “건축이라는 예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반세기를 바쳐왔다”고 소회를 표명했듯이 지역사회와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동반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1. 수암마을에 오면 세대와 직급을 잊어요! 2024년 상반기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
2,3. 16개조로 나눈 일부 직원들이 양파밭 수확과 밭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다.



상지건축과의 인연으로 노인회 전통장류 사업 시작

(주)상지건축과 수암마을을 연결해준 경남농협은 지역의 5개 기업과 고등학교, 대학교 등 6개 학교를 농촌마을과 이어주고 있다. 경남농협 강인철 과장은 “2010년 자매결연을 맺을 때 (주)상지건축에 농촌마을 5곳을 추천했는데 상지건축 답사팀이 5개 마을을 모두 돌아본 후 마을 규모가 작고,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수암마을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상지건축-의령 수암마을 15년의 동행

2010	1사1촌 자매결연 체결
2011	농산물 가공시설 무료 컨설팅
2012	마을회관, 경로당 도배, 장판 교체 노후주택 무상수리
2015	수암마을 어르신 팔순잔치 후원 농촌사회공헌 인증(농림축산식품부)
2016	도농교류 정부포상 산업포장 수상 담벼락 벽화작업
2017	상지건축 김동희 명예회장, 허동윤 회장 수암마을 명예 이장 위촉
2018	망개떡 만들기 체험행사
2019	10주년 기념행사
2023	마을회관 벽화보수 및 돌담 벽화작업
2024	도농교류 정부포상 상신(훈격 미정)

상지건축은 매년 봄, 가을 정기봉사 때 100여명 이상의 임직원이 방문하여 일손돕기와 재능기부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벽화제작팀은 봉사활동 하루 전에 선발대로 도착하여 1박2일 동안 마을 담벼락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2024년 6월 15일, 상반기 일손돕기 행사에는 근무가 없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서울 등 전국에 흩어져있는 사무소에서 임직원 130여 명이 참여했다. 오전 8시쯤 수암마을로 속속 모여든 봉사활동 참여자는 임원부터 평직원까지 세대를 아우른다. 15년째 이어오는 행사이다 보니 집결부터 조편성, 역할 나눔까지 모든게 일사분란하게 착각 진행되었다. 이날 상지건축 임직원들은 16개조를 편성해 양파, 마늘 수확, 단감 적과, 밭고르기 작업을 도왔다. 2개조는 마을정비조로 꾸러 축사와 하천, 마을 진입로의 제초작업, 꽃동산 가꾸기 등 마을의 구석구석을 정비하고 살폈다. 일손돕기 작업이 끝난 오후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마을 주민들과 음식을 나누며 흥겨운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다.



1. 돌담의 변신을 기대하세요! 하루 먼저 도착한 벽화팀이 담벼락 벽화작업을 하고 있다.
2. 상지건축의 도농교류 산업포장 수상을 축하하는 마을 입구의 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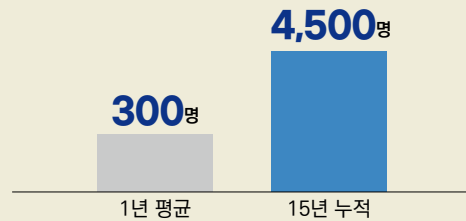
상지건축 임직원들은 돌아가는 길에 미리 신청해놓은 양파, 마늘과 감자, 매실 등 5백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하여 임직원이 나누었다. 수암마을에서 유기농쌀 재배가 한창일때는 최고 2천만 원어치를 구매하여 마을 경제에 큰 도움을 준 적도 있다.

수암마을의 송지연 이장은 “상지건축 직원들이 일손돕기를 왔을 때 마을 어르신들이 담근 된장을 맛보고 응원해준 덕분에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얻고, 노인회 회원 전원이 찬성하여 전통장류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상지건축 관계자들은 가공시설 건축 컨설팅부터 부산 본사 앞에서 장류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적극 홍보해주는 등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상지건축은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현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로부터 농촌사회공헌 기업인증을 받았고, 2016년에는 정부로부터 도농교류부문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한눈에 보는 일손돕기 성과

1. 일손돕기 PLUS



2. 하루 생산성 PLUS



3. 재능기부·나눔 PLUS



**봉사활동에 진심인 상지건축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암마을 송지연 이장

수암마을로 귀촌한 후 15년을 상지건축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보여주기식 1회성 행사가 아니라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주는 진심어린 일손돕기에 늘 감동하고 있어요. 텃밭을 일구고, 수확을 도울 뿐 아니라 농산물 구매까지 해주어서 노령 1인가구가 많은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극한직업 농사를 평생 해오신
어르신들을 존경합니다**



(*)상지건축 박창석 전무

15년을 거르지 않고 매년 수암마을을 찾았어요. 고작 반나절을 일하면서도 농사의 힘듦을 매년 체험하기에 마을 어르신들과 모든 농업인을 존경하게 되었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수암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것에 상지건축의 모든 가족은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농번기에 서투어도 귀한 손이죠” 농심 활짝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자매결연 지역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역 특화작물

오이, 고추,
담배, 옥수수

중개 기관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봉사활동 실적

64명(2024년 기준)

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농민-학생 연대활동

“올해 초였을 거예요. 코로나 세대인 우리 학부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함께 모여 결속력도 다지고 의미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충북농협본부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일손돕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유지연 지도교수는 그렇게 문을 두드린 것이 충북 괴산군 청천면 농촌마을과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원대학교 학생들은 각 학부와 동아리 단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시행하는 ‘농촌재능나눔활동’을 통해 농촌 특화마을 조성에 다양하게 참여하였으며, 충북도가 주관하는 도시농부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일손돕기 활동에 참여한 주체는 괴산군 청천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학생들로 2024년 5월 원도원마을을 방문한데 이어 9월에는 이평리로 일손돕기에 나섰다. 봉사활동의 대상이 되는 농가는 주로 독거농, 고령농 등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외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농가들이다. 수혜농가 선정은 일손돕기를 중개한 충북농협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해서 주선하고 있다. 상반기에 참여한 학생 40여명은 원도원 마을의 취약 농가를 방문해 고추밭 부직포 작업, 말뚝 작업,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등 농가에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일부는 재능나눔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영상자서전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였다. 원도원 마을 어르신들의 인생 자서전이 담긴 영상은 지자체 SNS에 업로드 되었다.



1. 2024년 상반기, 원도원 마을에서 꽃 심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원대학교 학생들
2. 서원대 학생들이 원도원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상자서전을 촬영 중이다.
3. 하나둘, 치즈! 트럭을 타고 즐겁게 농가로 이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서툴지만 다함께 열심히, 농촌에 활력 충전!

2024년 9월 27일 오전 10시 무렵, 가을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단체버스를 탄 서원대 학생들과 충북농협 담당자가 이평리 오이농가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충북농협 정두용 과장이 작업도구와 기념품을 전달하자 학생들 사이에 여기저기 탄성과 웃음이 터져나왔다. 정두용 과장은 “사진을 찍기 좋아하는 젊은 학생들이 즐겁게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 궁리하다가 각자의 개성대로 재미있게 골라입도록 다양한 패턴의 일바지들을 하나하나 직접 골라서 구매했다”고 전했다. 오래전 농촌드라마에서나 구경했을 법한 화려한 일바지를 받은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충북농협에서는 일바지 외에도 도시락, 음료수, 일손돕기 키트(팔토시, 작업모자) 등을 직접 준비해와서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학생들은 각자 고른 일바지를 착용하고 기념 사진을 찍은 후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날 학생들이 방문한 곳은 하우스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로 오이를 수확한 뒤 다음 농사를 위해서 늙은 잎과 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했다. 생소한 작업인 만큼 농가주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며 어떻게 집계를 분리해서 늙은 잎사귀들을 제거하는지를 진지하게 배웠다. 1차로 집계를 지지대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집계를 모두 모은 후 지지대에 걸린 넝쿨과 잎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 날 학생들에게 할당된 작업이었다. 일부 학생이 트로트 음악을 틀며 작업 현장의 분위기를 즐겁게 띄우자 농가주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어졌다. 최재수 농가주는 “우리 아들이 딱, 대학생이야. 아들 또래 학생들이 더운 날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일해 주는 것을 보면 기특해”라며 작업 중인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9월말의 가을 햇볕이 강렬해서 작업 내내 땀이 줄줄 흘렀지만 학생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더위도 잊은 채 열심히 작업에 임했다.



1. 오늘은 내가 이평리 패셔니스타! 각기 다른 디자인의 일바지를 골라 갈아입는 학생들.
2.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배운 대로 열심히 작업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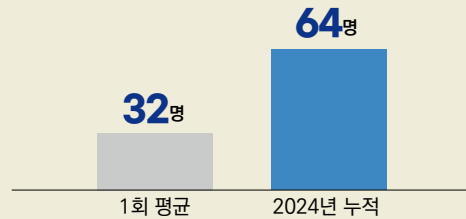


드디어 5시간의 긴 노동 끝에 잎 제거 작업 마무리!
오이를 수확한 이후 집게와 넝쿨을 제대로 제거해주
어야 다음 오이 농사 준비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이었는데 여러 학생들의 손길이 닿아
지지대에 영겨있던 마른 오이 넝쿨들이 완벽하게 제
거되었다. 깔끔한 지지대의 모습에 농가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작업이 끝난 후, 최재수 농가주는 학
생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직접 끓인 두부찌개를 내왔
다. 학생들은 저마다 엄지척을 올리고 '대박!'을 연
발하며 식사 인증샷을 찍었고 땀 흘려 일한만큼 두
부찌개를 맛있게 먹었다. 다 먹은 학생들은 그릇을
함께 정리하며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준 농가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서원대 경영학부 문지현 학생부대표는 “요즘 농가
들에 청년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와 같은 젊은
인력들이 농가에 도움을 드리면 보람되지 않을까 해
서 시작한 일인데 직접 농사일을 해보고, 농가주 분
들과 대화하면서 얻는 경험들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라며 봉사활동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한눈에 보는 일손돕기 성과

1. 일손돕기 PLUS



2. 하루 생산성 PLUS



3. 재능나눔 PLUS



**일손도 보탬이 되었지만
마을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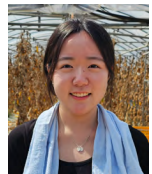
청천면 이평리 최재수 농가주

아들 또래 학생들이 와서 작업복을 챙겨 입고 일하는 모습
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줄 때 눈빛들이 초롱초롱해요. 늦여름 비닐
하우스 작업이 힘들텐데도 즐겁게 웃으며 작업하는 모습
에 절로 힘이 납니다. 일손에도 큰 보탬이 되었지만, 조
용했던 농가에 오랜만에 활기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뻐요.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
그 가치를 몸소 알게 되었어요!**

서원대학교 봉사단 학생대표 차재희



대학을 다니면서 주로 책상 앞에 앉아서 배우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봉사에 참여한 친구들 중에서
는 저와 같은 코로나 학번 세대들이 많아요. 밖에서 이렇
게 직접 부딪히며 농가에 도움 되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
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신 농가주 어른들께도 감사드려요.

2024 농업고용인력지원 우수사례집

일손, 연결하다.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기획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디자인·제작	대훈컴앤복스 (02-2261-5576)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